

# 부동산특조 보증료 협약으로 도민 부담 획기적 덜어준다

전남도와 광주·전남법무사회 간 전국최초 업무협약으로 도민이 부담하는 부동산특조법 자격보증인 보수와 등기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## □ 추진배경

- 2020. 8. 5.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운영에 필요한 자격보증인(법무사 등) 보증료가 우리 도 실정과 맞지 않게 결정
  - 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동일하게 보증료 450만원으로 결정(법무부)
- 특조법 신청 보증보수 및 등기수수료 경감을 위한 광주·전남 법무사회와 업무협약 추진 \*법 시행 : 2020.8.5.~2022.8.4.(2년)

## □ 주요 추진내용

- 『전남도↔광주·전남법무사회』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업무협약
  - 일시/장소 : 2020. 7. 28.(화)/ 도지사 접견실(VIP실)
  - 참석 : (도) 지사님, (법무사회) 회장, 부회장, 감사 등

### [협약내용]

- ◆ 자격보증인의 기본보수액 조정 및 30%감액, 등기 수수료 50%감면
  - \* 보수액 조정(450만원→100만원), 30% 추가 경감 : 70만원/건당 ▶1건당 380만원 절감
  - \* 등기수수료 기본 14만원, 50% 경감 : 7만원/건당 ▶1건당 7만원 절감
- ◆ 보증업무에 적극 협력하고 실권리자 보호 및 구제에 노력

-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
  - 일시/장소 : 2020. 10. 27.(화)/ 광주·전남법무사회관
  - 주요내용 : 자격보증인 보증방법 및 도민의 편익 제공 서비스 협의
-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중앙 및 국회 법률 개정 촉구
  - 개정요구 : 중앙부처 방문(2회), 국회 방문(1회, 윤재갑의원 등 12명)
  - 주요내용 : 보증보수료 현실 반영, 과태료 및 과징금 배제조항 신설, 적용범위 확대(1995년 6월 30일→2005년 6월 30일)



업무협약(20.7.28)



법무사회와 협의(20.7.23.)



국회 윤재갑의원실 건의(20.11.5.)

## □ 주요성과

- 자격보증인(법무사) 수수료가 전남 실정에 맞지 않아 전국 최초로 광주전남법무사회와 협약으로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감면

- ▶ 보증수수료가 농·어촌지역 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책정되어 법무사회를 설득하여 수수료 감면 협의 도출(건당 450만원)
  - 기본보수료 최고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도민에게 30% 경감 협의(70만원 이하)
  - 전남 평균지가 : 10,999원/㎡ → 330㎡ 기준 약 360만원 (자격 보증료가 25% 높음)
    - 최고/최저 : 4,240,000원(여수 학동)/ 163원(완도군 청산면, 임야)
- ▶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 수수료(1건당 14만원) 경감 협의
  - 등기수수료 14만원의 50%를 경감하여 7만원으로 조정 협의

-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보증료 감면 효과 : 98억5천7백만원

(단위: 백만원, 건)

처리 실적 ('20 8.5~10.30)	자격보증 수수료		도민수혜금액	비 고
	감면 전	감면 후(30%)		
2,594	11,673	1,816	9,857	3개월 추진실적 (예상업무량 296천필)

## □ 향후계획

-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법 개정 지속 건의 : 2020. 12월 예정
  - 적용범위(2005.6.30.)를 확대하여 많은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
  -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률 신설

▶ 전라남도 홈페이지 "도지사에 바란다"에 수수료 인하 감사 글 미담사례